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30일 창간

1946년10월 26일 창간 | 제 2874호
Honam Shinmun
2020년 2월 25일 (음력 2월 2일) 화요일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 청장 맘대로 넣었다 뺀뒤 또 꽂아

총선 예비후보 캠프 들어가려 공직 내던진 측근 2명

출마 포기로 오갈데 없어지자 자리 만들어 다시 채용

시민사회단체 비판 봇물이뤄도 金구청장은 마이웨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코로나19 광풍'으로 어수선한 틈에 구청장 측근 인사를 슬며시 과장급 간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가 들통나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불과 한 달 전 4·15총선을 앞두고 모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직제에도 없던 자리를 급조해 다시 사무관(5급) 상당 간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참여자치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최근 5급(사무관)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과 홍보기획보좌관에 김병내 구청장의 측근 두 명을 앉혔다.

남구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명의 충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하루만에 면접을 실시하고, 이튿날 최종 임명을 확정하는 등 단 사흘만에 속전속결로 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구청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자들로 김병내 청장이 취임하면서 대외협력관(5급)과 기획실 주무관(6급)으로 특별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해왔었다. 그러다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한 달 전 공직을 사퇴하고 선거캠프에 들어갔었는데 해당 후보자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캠프를 해산시켰고, 두 사람의 입지도 난감해졌다.

이에 남구는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을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의회의 제동으로 조례 변경이 어려워지자 '전문 임기제 공무원 특별채용'이라는 꼼수를 만들었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특별채용'은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김병내 청장은 한 달 전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리하게 밟으면서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동안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는 선거 캠프 인사를 재량껏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으나 불과 한 달 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사직한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인사행정이 분명하다"며 "공직 인사를 둘러싼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몹시 나쁜 재임용 선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실천하고 재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이 최측근을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광주 경실련은 "총선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사표를 낸 인사를 한 달 만에 재임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만약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다른 단체장에게도 나쁜 선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들도 "5급 사무관에 임용되려면 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구청장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용이 반복되는 행태를 보면서 '불공정 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슬하다"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여의도행 불발로 백수가 되자 다시 간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구청을 사조직이나 다름없이 여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시민들은 "지역민들을 위한 현안 처리에는 최소 몇 달씩 걸리는 남구청이 김병내 구청장의 측근을 챙기는데는 불과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실감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경석 기자

감염병 대응단계 '심각' 24시간 상황실 운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경찰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

112 신고 급증…격리대상 접촉자 소재파악 등 지원

광주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력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따르면서 광주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접촉자 확인에 도움을 주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총 59건의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력과 이들과 접촉한 탓에 감염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병원에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광산구에서는 외국인이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또 한 남성은 지인이 신천지 신도라며 감염이 염려된다는 신고를 했고,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신천지 교인의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왔다.

대구 방문 이력의 남성이 쓰러졌다는 내용과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오인 신고도 접수됐다. 폐쇄된 신천지 교회에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신고도 있었으나, 교회에 상주하는 몇몇 교인들로 파악됐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파악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헬스장 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해달라는 요청과 주소지 확인 요청이 접수됐으며, 자가 격리 대상자의 위치 추적 요청도 접수돼 경찰이 도움을 줬다..

광주 경찰은 지역 내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신도들은 물론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가 늘어가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서별로 구체적 대응 요령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기능별 조치요령'을 내려보내고,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과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발열 검사 등도 강화했으며, 각 경찰서 관내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예방적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주민주도 문제해결 '사회혁신' 사업 공모

지역사회 등 3개 분야 발굴 계획…최대 3천만원 지원

전남도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마을공동체 등이 직접 주도해 해결할 '사회혁신' 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혁신'은 최근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참여 공간개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10개 내외 사업을 선정, 사업별로 1000만~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후, 다음달 6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전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고동석 전남도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 사회혁신의 우수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주인인 도정 실현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